

건축문화 사랑

Vol.060 10, NOVEMBER 2014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4.11

060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창간 5주년 독자들에게 길을 묻다

특별한 만남

광주도시공사 조용준 사장



창간5주년 기념 인터뷰_사람&issue

광주/(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홍근 건축사



제18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부문 금상_오월어머니집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홍근 건축사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공부문 대상_부안 청자전시관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특집서론 02

사람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활자의 집_신정철

특집기획 03

독자가 바라본 “건축문화사랑 신문” 5년 그리고 앞으로의 5년

특별인터뷰 04

광주도시공사 조용준 사장 (전)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사람 & issue 05

건축문화사랑 신문 “박홍근 초대 편집인”과의 만남_박홍근

작품소개 06-07

제18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오월 어머니집” /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부안 청자전시관”

학술 08

조경과 인접 분야의 협업과 상생 제3부_안상욱

건축문화제 09

광주 개최되는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 / 제1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려

NEWS 10~13

경상북도를 달군 “2014 대한민국사대회” 이모저모 / 광주건축사회원 모두 한마음이 된 “제6회 한마음 체육대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 광주 도시재생·건축공모전 수상작 발표

건축문화사랑 신문 창간5주년 기념 특별전

- 표지로 보는 건축문화사랑 5년사

2014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사람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활자의 집



신정철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2014년 10월 22일 가을이 깊어가는 날에 ‘건축문화사랑’ 창간 5주년을 축하하며...

발간사를 쓰던 적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며 유수와 같이 빠르다는 세월의 속도를 실감하며 살기는 하지만, 이렇게 빨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리란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2009년 10월 당시, 건축사로 살아오면서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묵혀 두었던 숙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의 오랜 꿈이기도 했지만, 제가 광주건축사회 회장에 출마하며 내걸었던 선거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지역 건축사의 시대적 역할을 돌아보고, 건축문화에 대한 성찰과 고뇌를 폭 넓게 담아내며, 세상과 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건축문화의 저변을 넓히는데 필요한 건축문화의 장을 만드는 일이었고, 그 일을 위해 전문저널을 창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저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지만, 필요한 재정적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문창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건축문화의 토양을 위해서 이 지역을 대표할 건축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많은 건축인들의 동의와 격려에 힘을 얻어 ‘건축문화사랑’을 창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일을 위해 전남건축사회의 김강수회장님, 전북건축사회의 이성엽회장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분 회장님께서 감사하게도 호남지역을 대표할 신문을 만들어 보자는 저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건축문화사랑’의 창간은 당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신문을 시작 할 수 있도록 함께 재정을 감당해주며 공동창간발행인으로 동참해주신 두 분 회장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본업을 뒤로하고 열악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초대 편집장을 맡아 열정적으로 신문 만드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부으시며 건축문화를 위해 초석이 되셨던 박흥근 건축사님과 초대 편집위원님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오늘의 ‘건축문화사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건축사신문은 서울 본 협회와 부산지역의 건축사신문이 전국규모의 신문으로 발행되고 있었기에, 두 지역의 신문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신문으로 중앙과 영남 호남의 건축사 신문이 각각의 독특한 내용들로 균형을 잡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문이 접근하지 않은 문화신문으로서 편집방향을 정하게 되어 오늘의 ‘건축문화사랑’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건축문화사랑’은 문화신문으로써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문화적 환경을 지켜내는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건축전문가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의 장이 되었고, 대 시민사회에 건축인들의 문화적인 소통과 접근을 통하여 시민사회에 건축문화를 문화로 인식시키는데 훌륭한 성과를 낸 전문 저널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건축문화사랑’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의 사회적요구와 필요를 충족하는 신문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쉽게 속

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5년의 성과 앞에서 자축하며 자부심과 자긍심도 가져야겠지만, 향후 사회적 환경과 문화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전문저널로 ‘건축문화사랑’이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대중을 소통시키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환경들은 엄청난 속도로 사회와 지구촌의 여러 환경들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속도와 정보의 양이 단시간에 확산되어 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가 하이패스의 시대에 전문저널로써 ‘건축문화사랑’이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대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폭 넓고 다양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문화의 통섭·통합·융합의 시대에 걸맞은 지역의 사회적 환경과 문화를 통합하는 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신문으로 발전해 갔으면 합니다. 또한 건축사의 생존에 관한 환경들이 지금은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어려워진 건축사 업역 전반에 관한 생존의 문제에도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요구를 충실히 담아내는 생존의 방벽역할을 잘 해주는 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그루의 어린 나무가 성목이 되기까지는 많은 보살핌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위대한 가치는 단시간에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그루의 어린 나무가 성목이 되기 위해서는 시절을 따라 양분이 될 거름과 햇빛과 비와 바람도 필요하며, 잔가지를 잘 쳐주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그 수고를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 입니다. 큰 나무가 되면 커다란 쉼터와 그늘을 만들어 보살펴주었던 고단한 그 수고의 손길들을 위로하고 편안한 쉼을 주는 아름다운 품앗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문화사랑’이 큰 나무가 되어 그리 멀지 않은 날 우리 곁에 큰 쉼터가 되어 돌아 올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의 보살핌은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을에는 만물이 아름다운 본색을 드러냅니다. 뿌리고 가꾸며 땀 흘리며 살아온 흔적들을 열매로 드러내 보이는 결실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만큼의 흔적들이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평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창간 5주년을 맞이하는 ‘건축문화사랑’의 평가가 어떻게 보여 지는가? 는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결과이며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축인으로 살아온 평생의 시간들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집을 짓는 일이었던 것처럼 ‘건축문화사랑’도 창간 5주년을 맞으며 더 많은 “사람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활자의 집”이 되어 가기를 소원해봅니다. 이후로도 ‘건축문화사랑’의 앞날에 거침없는 문화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라며 오늘도 수고와 헌신으로 이 아름다운 일을 쉬지 않는 분들 모두에게 가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

건축문화 사랑 창간 5주년을 기념하여

호남권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창간한 건축문화사랑이 어느덧 다섯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건축사님들을 비롯한 대학 교수님들,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광고주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꾸준히 저희 건축문화사랑을 구독해 주신 독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건축문화사랑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잘 수립하여 호남권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문화사랑 공동발행인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장 안길전 / 전라남도건축사회장 국원식 / 전라북도건축사회장 김남중

독자가 바라본 「건축문화사랑 신문」 5년 그리고 앞으로의 5년

2009년 11월,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을 형성하고자 발행된 월간 '건축문화사랑 신문' 이 어느덧 5주년(60호)을 맞이했다. 이 전까지 창간기념호 마다 특별지면을 통해 전문가 혹은 편집위원들의 토론회 내용을 게재하며 본지의 발전방향을 수립했었다. 이번 창간 5주년 기념지면은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게재하여, 앞으로의 독자중심의 5년... 그리고 10년의 본지 방향을 계획하고자 한다.

건축문화사랑의 발간은 호남권 건축사회원들의 결의를 보여준 뜻있는 결단의 출발



김영문 교수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2014년 11월의 60호 발행으로 창간 5주년을 맞게 되는 「건축문화사랑」 에 먼저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가 주간하여 발행해 온 「건축문화사랑」의 지난 5년을 돌이켜 보면서, 전문지로서 우리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 해왔음을 자부해 봅니다.

사실 건축문화사랑이 발간된 당시 우리지역 건축계의 현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문지로서의 「건축문화사랑」의 발간은, 당당하게 우리지역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원들의 결의를 보여준 참으로 뜻있는 결단의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지와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기 까지 단 한 번의 결호도 없이 60호 발간을 앞두고 이렇게 축하를 받게 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 인 것이며 매우 뜻 깊은 일 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창간 5주년을 맞이하는 건축문화사랑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하며, 그 동안 진정한 「건축문화 사랑」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받쳐 오시며 수고 해주신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9년의 발간 10주년을 상상해 보며



윤대한 교수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시나브로 5년! 2009년 10월 따뜻한 느낌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창간했던 「건축문화사랑」이 5살이 되었습니다. 이 신문이 척박했던 광주·전남·전북지역 건축문화에 대한 단비 역할을 해 오는 동안 「건축문화사랑」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편집위원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몸부림이 있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보다 큰 발전이야말로 지금까지 신문을 발간하기 위해 쏟았던 노력과 그 결실의 의미를 담보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다양한 전문집필진 발굴과 신문 1면의 시사성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건축정보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건축문화의 충실한 역사기록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건축이 도시를 바꾸어 나가는 주요 축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크게 발전한 2019년의 발간 10주년을 상상해 봅니다.

“농촌건축에도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세요.”



박헌춘 전문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건축전공 공학박사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이는 몇 해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건축문화사랑」신문의 맨 앞장 상단에 3문단으로 쓰여 있다. 그 동안, 건축문화에 대한 사랑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고 감히 생각하며 구독을 해왔다. 그런 「건축문화사랑」의 창간 5주년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애독자로서도 감개무량하다.

문득, 처음 「건축문화사랑」을 접했을 때가 생각난다. 지역건축사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기에 지역소식을 지역건축사들끼리 공유하는 소식지 정도로 예상했었다. 그런데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역소식을 알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우리나라 건축계의 전반을 녹여내고자 노력하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와 건축을 공부하는 후배들과의 교류는 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마음을 빼앗겨 신문을 꼼꼼히 읽다보니 한편으로는 의문과 욕심도 슬슬 생겨나기 시작했다. 「건축문화사랑」에서 농촌의 건축문화에 대한 기사를 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듯이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지에서 발행하는 건축전문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에는 건축문화가 없을까? 아니면, 있더라도 언급을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가치가 낮거나, 관심이 없는 것일까?”

이에, 이번 기회를 빌려 농촌건축에도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보내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 그래서 건축인의 자존심·자긍심·자부심 등과 함께 진정성이 담겨있는 건축물이 넘쳐나고,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건축문화가 농촌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감히 청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농촌 고유의 건축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더불어 우리 부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조언도 조심스럽게 부탁해 본다. 모든 애독자들과 다섯 돌을 맞이한 「건축문화사랑」에게...

전체적인 글자가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백재봉 건축사
백 건축사사무소(전남)

독자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활자크기가 좀 더 컸으면 한다. 기본 글자크기는 괜찮지만 사진이나 부연설명에 들어가는 글자크기가 좀 더 크면 나이 드신분들도 잘 보이시리라 생각된다.

중요한 원고 내용보다 광고글자가 더 크게 보여 진다. 진정한 의미의 신문 특성을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

설계공모 도면도 크기가 너무 작아 글씨도 보이지 않고 의미도 반감되는 것 같다. 페이지수를 늘리든지 작품 수를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건축문화사랑」이 여러 계층의 독자들로 품으며 나날이 발전해 가기를 희망한다.

건축문화사랑신문이 건축과 도시와 문화를 오랜 시간 담아내길...

전라북도 건축인들도 축제의 계절에 건축문화 발전과 서로의 고충 그리고 친목을 도모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 4일 도립미술관 운동장에서 500여명의 건축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건축사회 주관으로 열었다.

처음 참석하는 나는 조금은 어색했지만 그것도 잠시, 낮은 얼굴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니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오늘날은 업무적인 대화가 아닌 세상사는 이야기들이 오간다. 그러다 보니 서로간의 격이 없어지고 서로가 형님·동생하는 사이로 변한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또한 훨훨 날려 보내는 시간이 된다.

세상엔 수없이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나와 같이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니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부족한 점 서운함이 있었다면 여유로운 웃음으로 감싸 주며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서로 함께 채워 나갔으면 한다.

「건축문화사랑」신문이 건축인들의 소통의 장으로써 건축이라는 틀 속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건축과 도시와 문화를 오랜 시간 담아내길 응원해본다.



조정태 건축민원담당
익산시청 주택과

「건축문화사랑」의 성장과 전통문화의 관심

우리지역 건축인들의 소통공간인 「건축문화사랑」신문의 5주년 발행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건축문화사랑」을 통해 우리 지역의 건축과 도시 분야에 대한 발전상 제시 그리고 건축인들의 소통공간으로서의 전달자 역할을 해주신 발행인, 기자, 건축사 등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사를 드립니다.

요즘 정부의 건축정책 분야에서 가장 급속한 변화는 지금까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해 왔던 한옥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한옥지원제도 도입이 아닐까 싶다.

전국 한옥지원조례가 제정된 54개 지자체 중 전라남도도는 전체 지자체 23개소가 2007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2,000여동의 한옥과 135개 한옥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전국 지자체들의 선도적인 사업시작이 그 동안 미온적이었던 정부의 관심을 '국토교통부·한옥 R&D사업'진행과 올해 제정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14. 6. 3.) 제정을 이끌어 낸 것 같다.

이 법률을 통해(시행 '15. 6. 4.) 정부의 지자체 한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되어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진흥 및 경쟁력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앞으로 「건축문화사랑」신문에서도 지금보다 더욱 우리지역 한옥사업 정책, 한옥마을 육성 및 한옥기술 개발에도 높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선주 주무관
전남도청 주택건축과
행복마을팀

어두운 면도 함께 다뤄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매달중순 쯤 되면 「건축문화사랑」이 사무실 우편함에 꽃힌다. 전면 칼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신문과는 다른 종이를 사용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펼쳐보지는 않고는 못배기게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지면구성도 잡지와 신문의 범주를 넘나드는 구성을 취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적절한 눈요기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끔 지인들의 건축사사무소에 들르는 경우에도 회의테이블위에 놓여 있는 「건축문화사랑」을 보게 되면 자연스레 손이 가게 되고 이야기의 주제가 신문내용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건축문화사랑」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창간 5주년이 된 것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지역 건축계의 정보전달 매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새로운 5년을 맞이하는 「건축문화사랑」에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지역 건축계의 밝은 면과 함께 어두운 면도 함께 다뤄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지역건축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누구에게나 '빛'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크지도 두껍지도 않은 신문은 내게 끝없이 펼쳐지는 건축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들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거나 깨달음을 주는 '학교'와 같았고,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보의 장'과 같았으며, 사회에 먼저 나가 일하고 있는 선배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작은 강연장'과 같았다. 어떻게 보면 「건축문화사랑」은 받으면 기분이 좋고 설레는 '선물'이었던 것이다.



황인광 건축사
타임 건축사사무소(광주)



김경훈 학생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창간 5주년 특별 인터뷰 '사람 중심의 도시'를 꿈꾸는 광주도시공사 조용준 사장 (전)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광주도시공사 조 용 준 사장

■ 주요 경력

- 조선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 (1974년/1981년)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1993년)
- 일본 도쿄대학 (東京大學) 연구원
- 일본 교토대학 (京都大學) 초빙학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 한국 주거학회 회장 (한국 주거학회)
- 한국 도시계획학회 부회장 (한국도시계획 학회)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대통령실)
- 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 (사단법인 광주건축단체연합회)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환경조성 자문위원장 (문화체육부)
- 광주 야구장 건립 시민 추진위원장 (광주광역시)
- 제1,2회 대한민국 한옥 건축박람회 추진위원장 (전라남도) 외 다수
- 현)광주도시공사 사장



▲ 지난 10월 22일 광주도시공사 사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광주건축계를 대표하는 건축학자인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준 명예교수가 지난 9월 23일 광주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건축계에서는 두 손 들어 환영과 축하의 말이 이어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막중한 책임감과 산적해 있는 업무와의 씨름에 취임 한 달 여만에 낮부터 달라져 있었다. 지난 10월 22일, 정확히 취임 한 달 여만에 이뤄진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잠시나마 학자로서 옛적의 자유로움을 그리워했지만, 광주시를 사랑하고 아끼는 도시 전문가이자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공언하기도 했다. 다음은 지난 10월 22일 광주도시공사 사장실에서 진행된 본지와와의 일문일답이다.

건축문화사랑 신문 창간 5주년을 맞이하여 축하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이라는 한 부분을 통해 언론을 형성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건축문화사랑이 창간 5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호남지역 건축문화창달과 지역 건축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점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 생각하며 건축문화 발전은 물론 도시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하신지 어느덧 한 달이 다되어 갑니다. 취임인사와 더불어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축하와 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뜻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주어진 직분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시작 했으니 힘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건설과 각종 공공 시설물 관리 및 기타 여러 사업등으로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위해 공공사업분야에 많은 힘을 쏟고자 합니다. 특히 도시재생과 관련한 선도적인 역할을 도시공사가 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도시와 건축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무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이며, 최고경영자로서 이론전문가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은 “내가 학계에 있는 동안 우리 광주를 위해 뭘 남겼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도시공사 사장에 지원하며 “이곳에서 내가 배우고 가르쳤던 이론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볼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런 이상적인 부분을 전부 다 반영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제가 생각한 20%만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따지다 보면 특별하게 이론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학자이자 여러 위원회 활동의 경험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넘 나들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장점 등을 활용하여 특히 도시재생 부분에 중점적으로 힘을 쏟고자 합니다.

광주도시발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공사를 이끌어 갈 ‘경영철학’ 과 ‘차별화된 정책구상’ 등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수준의 도시 철학을 가진 직원들이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내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그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 강사들을 초빙하여 각종 세미나와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도시공사의 브랜드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법적우월성을 가진 사업체라 일반기업체들보다는 브랜드 경쟁력이 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품질과 서비스의 차별화 및 마케팅전략 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여러 방안을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차별화된 정책구상으로는 호두메 마을을 토대로 도시재생의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조성을 위해 도시공사가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구성과 정책구성에 대해서 ‘지시적 리더십’이 아닌 ‘합의적 리더십’으로 직원들과 또는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타협하여 발전되는 광주도시공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임대아파트 건축과 더불어 현재는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 그리고 공동체형 주택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관리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건축인으로서, 광주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점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광주건축계 발전을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의 예전 건축방식이 아닌, 건축의 장인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건축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 친환경 건축,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건축 등 21세기에 적합한 건축에 대한 부단한 개발과 연구, 그리고 아이디어 제공등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광주도시공사도 그러한 역할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건축인들에게 당부의 말씀 바랍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개발압력이 강한 시대이자 산업화 시대로, 모든 것에 우선은 산업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낮은 출산율로 인구도 줄어들고, 늘어난 수명으로 고령화되어 가면서 사람중심의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우리 후배들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시민들과 광주발전을 위한 노력에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광주도시공사에도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취재 : 서재형, 박신남 건축사기자
정리 : 광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창간 5주년을 축하합니다.

<p>(주)건축사사무소 제이원 건축사 윤대두</p> <p>광주 북구 무등로 204 Tel.062-521-2377 Fax.062-521-2399</p>	<p>(주)다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범국</p> <p>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18-1 Tel.062-223-0385 Fax.062-223-0387</p>	<p>건축사사무소 다스 건축사 이수철</p> <p>광주 동구 중앙로 290번길 7 Tel.062-454-7511 Fax.062-222-7511</p>	<p>건축사사무소 미가온 건축사 이순미</p> <p>광주 동구 의재로 136번길 22-3 (미가온빌딩 2층) Tel.062-363-5462 Fax.062-363-5463</p>	<p>동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장동원</p> <p>광주 동구 백서로 167 (서석동 97-10) Tel.062-224-0060 Fax.062-224-0061</p>
<p>(주)맥스유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장정수</p> <p>광주 서구 시청로 96번길 12 Tel.062-373-3131 Fax.062-384-3534</p>	<p>새광주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전홍현</p> <p>광주 동구 독립로 368번길 22(계림동) Tel.062-515-8382 Fax.062-515-8381</p>	<p>(주)건축사사무소 이엘앤드자경재디자인그룹 건축사 정관성</p> <p>광주 동구 동명로 26번길 15-1(수하빌딩2층) Tel.062-384-6430 Fax.062-384-6431</p>	<p>정상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정정상</p> <p>광주 북구 서암대로 90번길 25 Tel.062-521-5995 Fax.062-521-5996</p>	<p>(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건축사 정태호</p> <p>광주 북구 무등로 255 (2층) Tel.062-512-8044 Fax.062-512-8041</p>

건축문화사랑 신문 “박홍근 초대 편집인”과의 만남

2009년 11월 ‘건축문화사랑’ 신문 1호가 탄생하기까지는 그 당시 발행인과 편집위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 위원들 중 박홍근 건축사(주)포유 건축사사무소)는 초대 편집인으로서 소임을 다하며, 3년 여간(2009년~2012년 3월) 본지의 뼈대를 만드는 선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창간 5주년을 맞이하여 초창기 신문을 발행했던 그 초심을 다지고,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묻고자 박홍근 건축사에게 만남을 청했다. 지난 10월 27일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주)포유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문에 관한 이야기와 건축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건축 인생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창간 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건축문화사랑 신문의 초대 편집인(1기)으로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직접 생각한 것을 실천하기가 어렵고, 실천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굴러가는 것이 이치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선임자(1기 편집위원)들이 길을 잘 갈고 닦았고, 그 후임자(2기 편집위원)들이 바통을 잘 이어 받았기에 이번 5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든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문 발행 초창기에 생각한 소통에 대한 부분, 특히 건축이란 틀 안에 있는 교수와 건축사 그리고 공무원들이 ‘우리 신문을 통해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삼자간(교수, 건축사, 공무원)의 소통의 도구가 우리 신문이 되고자 한 초기 발행의 목표를 후임자들께서도 잘 이어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본 신문의 편집위원 2기 체제가 된지 2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 지면 구성이나 원고 내용에 대한 평가를 내리신다면 또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해야 할 일들은 많다고 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 관성대로 계속 하다보면 초기에 가졌던 열정은 식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벗어나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A·B·C·D·E 다섯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 ‘목표(Aim)’의식을 갖고 둘째, 신문의 기본인 오타, 탈자 등 정보전달을 위한 ‘기본(Basic)’을 지키고 셋째, ‘소통!(Communication)’ 할 수 있는 장과 관점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장을 생각하며 넷째, 서울에서 나오는 신문(건축문화신문), 부산에서 나오는 신문(건축사신문)과 ‘차별화(Differanciation)’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열정!(Energy)’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편집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건축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 자식이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로써 건축의 터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제자나 후배, 내 자식이 건축의 터전에서 자기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건축하기 좋은 터전을 만드는데 우리 신문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생각들로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평생 남게 되는, 활자화 되는 것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편집위원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설계입문, 학업 등)

현재 목포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최일 총장님이 저의 대학교(울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로 계셨는데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 고향에서 설계를 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울생활을 하면서 면허를 취득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최일 총장님이 10여년 남짓 울산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시고 고향으로 오셨고, 저 또한 서울에서 남을지 고향으로 내려올지 고민하다 최일 총장님과의 암묵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향

으로 내려왔습니다. 저의 건축사로서의 길은 목포대학교 최일 총장님과 함께 걸어 온 길입니다. 지금도 스승과 제자로서 30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사무소명에서 철학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상호를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 생각해낸 것이 ‘포유(FOR YOU)’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현재 상호명인 ‘(주)포유 건축사사무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는 ‘사람에 대한 생각’, ‘사용자에 대한 생각’을 최대한 배려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저의 철학이 묻어나는 상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 ‘타임’지는 표지모델로 ‘YOU’를 선정했습니다. ‘당신’ ‘누구나’가 주체가 되는 세상에서 건축도 그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면?

자랑스러울 때는 내 자식이 아빠처럼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큰 보람과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워낙 고생을 하는 직업이다보니 자식에게 건축만은 하게하고 싶지 않았지만, 본인이 한다고 하니 더 책임감을 느끼고 좋은 건축 환경을 조성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듭니다. 부끄러울 때는 과거 건축주들과 시공과정(건축사와 상의하지 않은 설계변경)에서 큰 다툼이 많았던 것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언제 적인가 큰 다툼 이후 주택설계를 거의 말지 않게 되었는데 최근에야 아는 지인이 요청하여 다시 주택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담이 오면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난후 설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건축사와 상의할 것을 다짐받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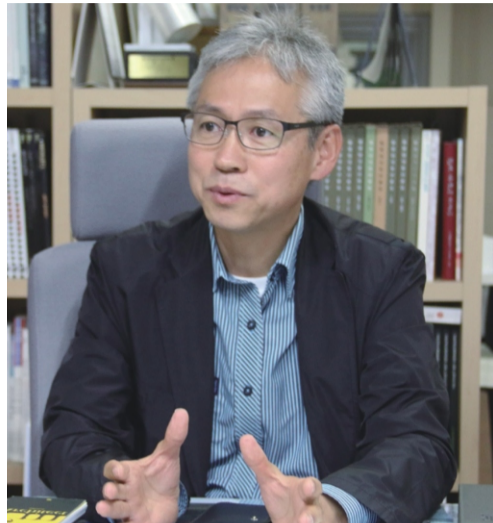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건축사로서 승효상 건축사를 나의 멘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만남을 가졌고, 그 후 시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자주 교류를 했었습니다. 비엔날레 사업과정에서 승효상 건축사님과 광주·전남 건축작품 33선을 책자로 만드려고 기획했었으나, 어렵게도 너무 늦게 시작한 탓에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교수들이나 건축사들 사이에서 승효상 건축사에 대한 평이 갈리기는 하지만, 저는 승효상 건축사 본인이 갖고, 저술활동을 하고 이를 실천하는 건축사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인물임에 존경함을 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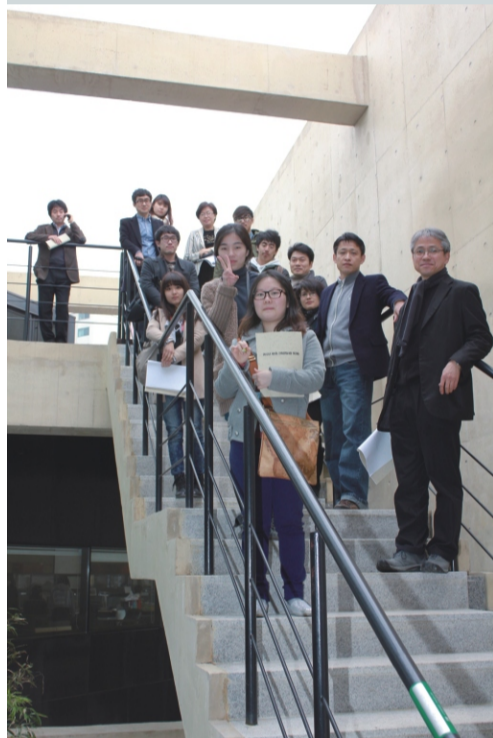
선후배들에게...

저는 늘 후배들을 만나면 만남의 폭을 넓히라고 조언합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배움과 사교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를 조언합니다. 또한 활동의 폭을 광주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작품 활동을 하시기를 바라며, 건축외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선배분들께는 후배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드는데 일조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리 : 광송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광주(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박 홍 근 건축사



▲ 박홍근 초대 편집인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본지의 발전을 위해 매번 워크숍 행사들에 참여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고 있다. (사진 오른쪽에서 1번째 박홍근 건축사)



▲ 지난 10월 27일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주)포유 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

박홍근 건축사가 건축 설계한 대표작품들



▲ 완도군수협 할어종합유통센터



▲ 광주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문화여성병원



▲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인파



▲ 나주 동신대학교 기숙사

6_ 작품소개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10월 6일 부터 17일까지 건축상 작품공모를 실시하고, 비주거 부분 금·은·동상 3개 작품과 주거부분 1개 작품을 선정 발표하였다. 작품심사위원은 대학교수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주거 부분 금상을 수상한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홍근 건축사의 오월 어머니집은 전통한옥과 근대건축이 공존하는 양림동의 장소성과 양림동의 문화 정서를 투영해 건축형태 및 공간구성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월어머니집

박 홍 근 건축사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제18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부분 금 상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418번길 18
 주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 470.43㎡
 건축면적 : 272.12㎡
 연 면 적 : 424.65㎡
 건 폐 율 : 57.84%
 용 적 률 : 90.26%
 규 모 : 지상 2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 : 노출콘크리트, 전벽돌, T24 로이복층유리
 설계기간 : 2013. 05 ~ 2013. 10
 공사기간 : 2013. 11 ~ 2014. 04



양림동은 110여년전 선교사들이 정착하면서 근대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 이전부터 있던 전통한옥과 함께 많은 문화유산들이 공존하며 매력적인 공간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역사문화마을이다. 세월의 흔적과 역사, 기억등의 커들이 쌓여 있는 이곳은 새로 들어설 건축물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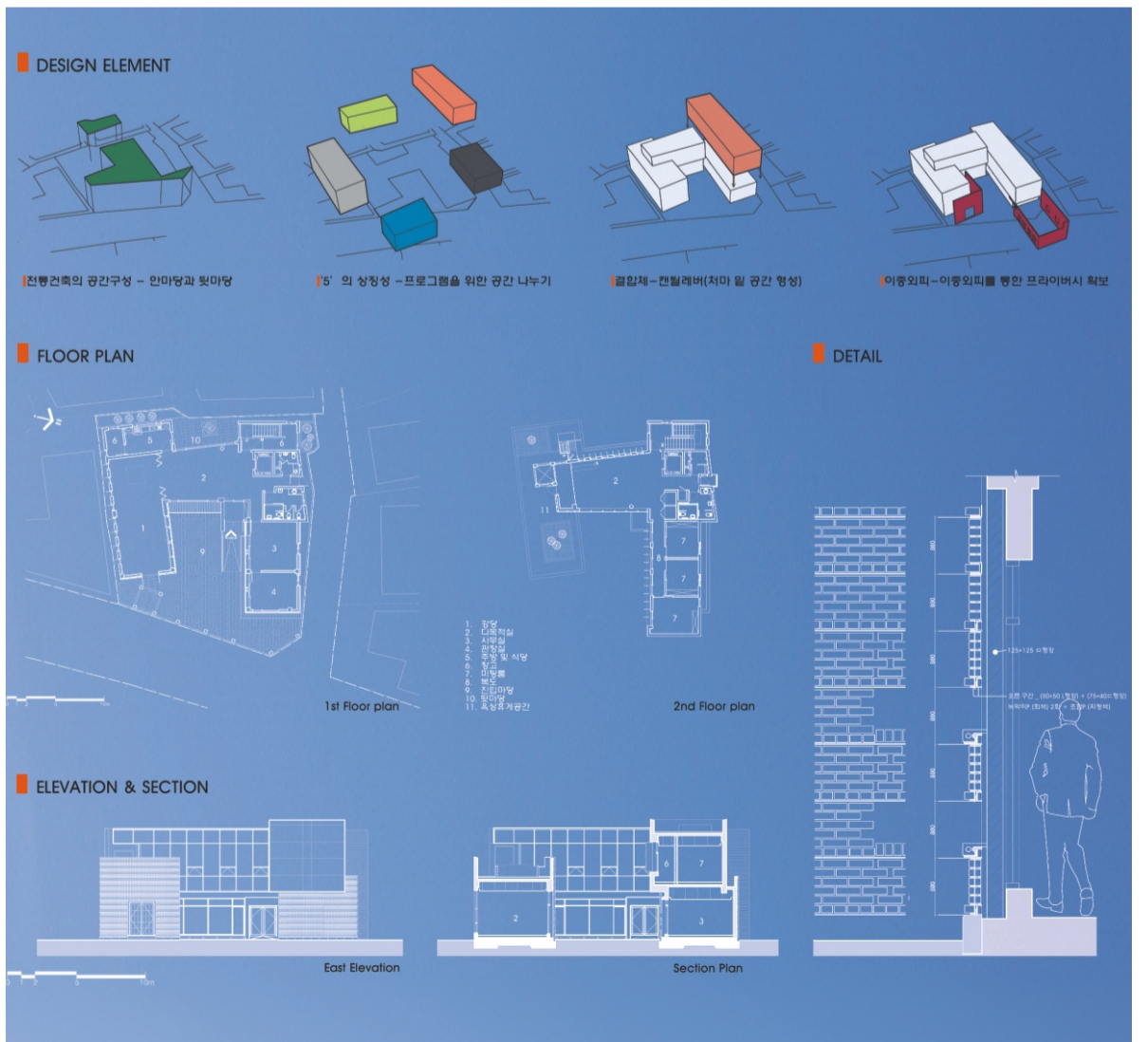
근대 건축물의 특징과 전통건축의 여취들이 이 작품에 녹아들어가 시간의 연속선상에 함께 하는 바람을 가졌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신 분들이 사용할 오월어머니집인 만큼, 그 의미를 되새기며 공간 나누기와 형태구성을 했다. 전통건축의 앞마당과 뒷마당이 비워있음으로 인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것 처럼, 이 건물의 진입마당은 모두를 포함할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 되도록 계획했으며,지역 사회를 위한 열린공간으로 구성했다.

진입마당에 접하여 현관으로 연결되는 길은 전통건축 처마 밑 공간처럼 캔틸레버로 디자인하였다. 마당에 접한 외벽은 이중외피로, 외부벽들은 작은 틈이 생기도록 띄어쌓기를 하여 스크린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외벽의 수많은 벽돌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시민정신의 결집체를 상징하고 상부의 큰 덩어리는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의 그 자체를 의미한다.

반사되는 유리벽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 보길 바라는 염원도 있다.

이곳 오월 어머니집은 '광주 3.1 운동' 을 주도했던 양림동의 역사와 더불어 오월정신의 맥을 계승 발전하는데 필요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포근한 공간이 되길 소망한다.



전라북도는 건축문화의 발전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축인 발굴을 위하여 추진한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을 선정 발표하였다.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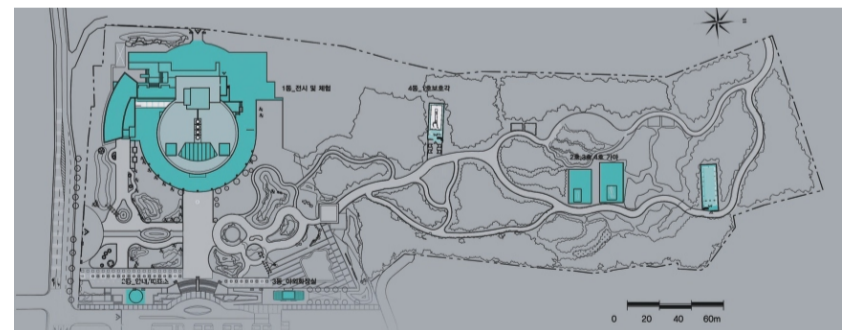
부안 청자전시관

이길환 건축사(주)길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을 동중리 222-1
 준공년월일 : 2012. 04. 07
 대지면적 : 69,452.0㎡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관)
 층수 : 지상 3층
 전시 및 체험관동 바닥면적
 1층 : 2,431.59㎡
 2층 : 2,295.2㎡
 3층 : 469.34㎡
 합계 : 5,196.13㎡
 기타 1호, 5호보호각, 안내동, 공중화장실등 414.14㎡
 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외장 : 산화동판, 화강석, 외편치장쌓기
 주차대수 : 87대



청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청자완을 입체적 도안에 활용하여 단순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독창적인 부안만의 박물관이 되도록 하였다. 외장재료에 있어서 구리를 미리 산화시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자와 가장 유사한 빛깔로 변하게 되는 산화동판을 3차원의 매스에 거멸접기 하여 진입공간에서부터 청자의 이미지를 느끼도록 하여 전시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전시공간과 체험공간을 분리하여 기능이 원활하도록 하였고 각동선이 복도를 통해 연결되도록 하여 전시로 인해 피로한 눈이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하였다. 경사진 대지의 자연지형에 부합하도록 스킵형 플로어를 적용시켜 자연스러운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주진입공간에 대형주차장을 후면 부진입공간에 서비스동선을 주어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문화재와 인접한 박물관 옥상에서 도요지등을 전망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시공간과 체험공간 그리고 실제청자를 생산하던 터를 볼수 있도록 전통형 산책로를 구성하였다.



조경과 인접 분야의 협업과 상생 _ 제3부



안 상 옥 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aswnby@naver.com

- 제1부 - 조경과 도시계획 분야 (2014년 9월 게재)
- 제2부 - 조경과 건축 분야 (2014년 10월 게재)
- 제3부 - 조경과 토목 분야 (2014년 11월 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상옥 단장은 도시계획·조경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LH에서 운정새도시의 개발사업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자체의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경과 건축분야의 협업과 상생



▲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도
(동그라미가 공원과 하천, 차도와 연결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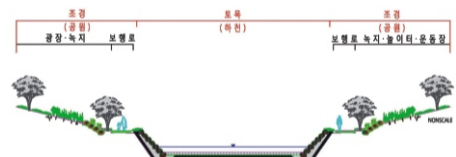
▲ 도로(차도)와 연결녹지(보행로 포함)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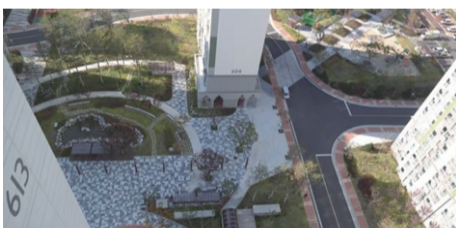
▲ 도로(차도)와 연결녹지(보행로 포함)의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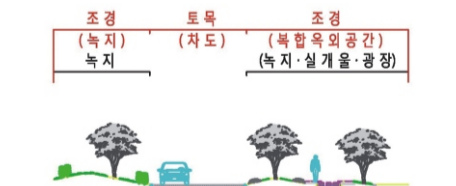
▲ 공원과 하천의 만남



▲ 공원과 하천의 협업



▲ 공동주택단지의 옥외공간 모습(광장·녹지·차도·놀이터·녹지)



▲ 공동주택단지 옥외공간의 협업



▲ 운정호수공원 주변의 공동주택단지 상입시설

건설공화국과 토건국가

조선은 1897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며 국력키우기에 힘썼으나 1910년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독립운동 선열의 피를 딛고 1919년 외국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다. 1945년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다가 3년 뒤인 1948년 대한민국으로 대내외에 독립을 선포하였으나 1950년 6.25전쟁으로 국토는 산산조각이 난다. 이승만정권 장기집권 뒤 4.19의거로 들어선 제2공화국정부는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에 힘을 모으며 경제개발5개년 계획(1961~65)을 수립하는 한편, 산업 현대화와 국민소득 증대의 기반확충을 위해 국토건설사업(1960~61)을 했는데 제방, 도로, 하수도, 농경지, 저수지, 댐과 발전소 등 사회간접시설의 건설과 설치가 대부분이었다. 5.16으로 집권한 제3공화국이후 지금까지도 이러한 국토건설사업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소득이 2~3만달러 수준으로 높아진 지금까지도 사회·문화·복지 분야로 예산이 크게 흐르지 못하는 까닭을 비판하는 이들은 이를 토건국가흐름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경분야의 발전

경제개발을 위한 토대건설과정에서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은 도로·철도·댐·농경지·독과 제방·산업단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드러운 속살을 드러내며 신음하게 되었고, 파괴된 자연환경을 치유하기 위해 조경분야가 도입되었다. 특히, 제도적으로는 국토 단위와 대지 단위로 양분할 수 있는데, 국토단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과 하위령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 규칙) 그리고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녹지법, 대지 단위는 건축물을 짓는 건축법(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포함)과 조경기준을 중심으로 조경관련 제도가 발전하였다. 이 가운데 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축법 관련 사항은 앞서의 글에서 설명하였고, 오늘은 국토단위에서 조경분야와 토목분야의 협업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등에서의 협업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등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실시계획과 대지조성설계과정에서 두 분야의 협업이 중요하다. 조경전문가는 개발계획단계에서 수립한 공원녹지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별 공원녹지의 주제와 특화전략을 수립한 뒤 토목분야의 대지조성설계에서 녹여내도록 해야 한다. 특히, 원지형(구릉지·저수지 등) 보존형 공원, 저류지검용공원 등의 대지조성설계과정에서 조경분야가 먼저 공원녹지별 주제를 설정하고 지형조형(기본)설계를 사전에 정리하여 대지조성설계의 토공설계나 기존 수목의 별개제근도 작성에 반영시켜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도로·하천·공공공지 등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규칙에는 도로·보도·보행자전용도로·보행자우선도로·자전거전용도로(제2장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제3장 공간시설), 학교·운동장·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제5장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유수지·방풍설비(제6장 방재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납골시설·자연장지(제7장 보건위생시설), 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제8장 환경기초시설)의 결정기준과 구조·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위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콘크리트 중심의 구조물, 식생 중심의 녹지, 차도포장/보도포장, 배수시설/빗물침투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구조적 해석이 필요한 구

조물·차도(아스콘)포장·배수시설은 토목분야에서, 식생 중심의 녹지·보도(브릭)포장과 빗물침투시설은 조경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맡고 있지만, 공간 연계와 시설별 체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협업해야 한다.

건축물·공동주택 옥외공간에서의 협업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옥외공간에서는 조경분야에서 총괄하며, 식생 중심의 녹지, 보도, 놀이·운동·휴게 공간과 시설물, 빗물침투시설 등 대부분은 조경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맡고 구조적 해석이 필요한 옹벽 등 구조물, 차도(아스콘)포장 등은 토목분야에서 맡고 있다.

도시공원·자연공원·완충녹지·연결녹지...

단위 공간의 규모가 큰 공원·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기본적으로 조경분야 스스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고 조경설계와 시공을 맡고 있다. 다만, 토공사, 다리와 하천 등 구조물공사 등은 공원의 통합디자인 틀 아래에서 토목분야가 참여하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된다.

조경과 토목의 협업

건설분야가 정체되고 서로의 몫을 주장하며 내뿜기기에 힘을 쏟다보니 조경분야와 토목분야 사이에 어느 정도의 다툼은 생겨나기 마련이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사람중심의 도시·주택, 경관·환경 중시 등 사회 여건의 분화로 조경분야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사회환경속에서 조경의 전문성이 중요한 공간·시설은 조경가가 주도적으로 맡는 게 바람직하다. 도시나 부동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화전략도 소비자인 시민·주민의 선호도를 중시하다보니 시설의 구조·기능에서 사람·경관·디자인·생태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이러한 흐름은 민간 공동주택단지 옥외공간에서 조경과 토목의 업역과 공사비 수준을 비교해보면 생생하다. 차도의 아스콘포장과 구조해석이 필요한 구조물 그리고 토공정도만 부대토목에서 맡고 나머지 모든 옥외공간은 통합디자인의 틀 아래 조경에서 맡으며 공사비는 대체적으로 토목공사비의 3배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 소비자인 입주주민이나 도시민들이 생태성, 환경친화, 경관성, 보행성, 쾌적성, 사람먼저 등을 중요시할수록 조경가와 조경분야가 해결해야 할 역할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조경가의 자세

광교신도시의 광교호수공원이나 세종신도시의 중앙호수공원처럼 운정호수공원이 580여만평 운정신도시의 얼굴로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운정호수공원에 인접한 주택단지나 상가의 부동산가격은 운정신도시의 다른 곳에 비해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광교호수공원에서도 비슷한 모양새다. 조경가는 21세기 도시경쟁력의 흐름을 이해하고, 도시민·공동주택 입주민·상업업무문화시설 이용자 등의 선호도와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도시개발이나 주택·건축 건설과정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경쟁력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 도시 이해의 틀 위에서 조경가가 토목전문가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식생과 자연의 생태성, 환경친화, 경관, 사람의 행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취약한 토목분야의 구조, 토질, 수리, 수문 등을 학습하여 전문분야사이의 통섭과 협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조경과 인접 분야의 협업과 상생”을 연재해 주신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안상옥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에서 개최되는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

- '문화로 키우다'라는 주제로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1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도 함께 열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개막, 다양한 전시프로그램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의 공식후원으로 (사)한국건축가협회(회장 한중률)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회장 정광민)가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오는 11월 5일부터 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문화로 키우다(Cultivate)”라는 주제로 주제강연, 일반전시 및 특별전시, 각종 세미나와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며, 특히 올해에는 행사장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를 둘러 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까지 마련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건축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은 물리적 구조물로도 임하지만 인류의 삶 자체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 그 자체로서, 주어진 것 이상을 세심한 눈으로 찾아내어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문화로 키우다(Cultivate)”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축가들의 다양한 활동과 예비건축가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현대건축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우리 건축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프로그램과 국민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강연회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포지엄 및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일상 생활공간을 주민들이 쾌적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는 데 기여한 단체 및 개인, 지자체에 수상하는 '2014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특별전시를 비롯하여, 젊은건축가전 등이 전시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지역에서 개최되는 4번째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임을 기념하여 컬티베이트 주제전 및 지역건축가전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 수상작 전시 및 행복을 담은 건축학교 등 초·중·고 학생들과 예비건축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작품들도 전시된다.

건축가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정부시책에 따라 마련된 현장실무교육강좌 및 친환경건축설계 세미나, 국제심포지엄 등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건축문화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 해 협회가 대한민국건축문화제를 새롭게 하기 위해 마련된 주제 강연회 및 매년 수여하던 시상제도를 대폭 개편·신설한 한국건축가협회 골드메달(KIA Gold medal), 한국건축가협회상(올해의 건축 베스트 7) 및 특별상, 국제건축가연맹의 공식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 및 광주건축 100년전, 골드메달 수상자 강연회 등은 올 해 가장 주목할 만한 행사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거주공간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서 이번 대한민국건축문화제를 개최하는 한중률 회장은 “너 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기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삶의 터전에 건축가로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재능있고 사명감있는 건축가들이 작은 건축, 아름다운 동네에 대한 지속적인 대안 마련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래서 국민 누구나 향유할 권리가 있는 살기좋은, 아름다워서 누구에게나 자랑하고픈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또한 민·관·학 협력을 통해 3년 앞으로 다가온, 전 세계 130만여명 건축인들의 축제가 될 2017 국제건축가연맹(UIA) 서울 세계건축대회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광주건축가회 정광민 회장은 “문화수도 광주에서 대한민국 건축가들의 축제인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지역 건축문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대내외적으로 광주를 알리고 홍보하는 행사인 만큼 광주시민들의 많은 참여 또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4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막식은 오는 11월 5일 오후 3시, 빛고을 광주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어린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주최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직무대행: 안길전 광주건축사회장)가 주관하는 제1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11월 5일부터 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건축·도시문화제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광주를 위해 매년 지역 건축인과 건축을 사랑하는 시민들, 그리고 건축 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모여 건축·도시문화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가는 행사이다.

특히 올해 주목해야 할 전시행사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건축 사진전”이 열리는데 동아시아 문화도시인 ‘한국-광주시’, ‘일본-요코하마’, ‘중국-취안저우’ 3개국의 건축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 전시행사로 올해 광주의 우수 건축물을 볼 수 있는 “광주광역시건축상 수상작품 전시회”와 광주건축사회 국제 교류전인 “광주·후쿠오카 건축작품 교류전”이 열리며, 오랜 시간 교류와 만남의 장소였던 광주 충장로 우체국과 광주 우체국이 위치한 도시블럭의 장소성 부활을 위해 전국 공모된 “2014 광주 건축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된다. 또한 광주 푸른길을 주변으로 낙후된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인 “2014 도시재생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된다.

올해 문화제 프로그램 일환으로 일반시민과 어린 학생들이 참여한 각종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와 문화제 기간 중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는데, 공모전 행사로 진행된 건축·도시 사진공모 수상작 전시와 광주지역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된 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 전시가 진행된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종이접기 및 퍼즐 그림그리기 등을 할 수 있는 “건축 체험교실”과 건축에 대한 각종 민원에 대해 건축사가 직접 무료로 상담해주는 “건축민원상담” 코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해외 선진 건축문화를 간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특별세미나가 열린다. 오는 11월 7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일본 선진 건축문화에 대해 요코하마 시립대 스키노 노부하루 교수와 구니오시 나오유키 교수의 강연이 계획되었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직무대행 안길전 회장은 “이번 건축도시문화제와 같이 건축과 도시를 사랑하는 모든 건축인들의 창조활동이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물론, 세계 속의 건축문화도시로 가는 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제11회 건축도시문화제 행사 안내

전시행사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회	광주 우수건축물 선정 전시
	광주·후쿠오카 건축작품 교류전	광주·후쿠오카 건축사 우수작품 선정 전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건축 사진전	한국-광주시, 일본-요코하마, 중국-취안저우 3개국의 건축문화 사진전
	광주 건축공모전 입상작 전시	광주시 도시·건축 현안사이에 대한 전국 공모전
	도시재생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작 전시	광주 '푸른길 주변의 재생' 주제로 공모된 도시재생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작 전시
심포지엄	해외건축초청강연회	11. 7 (금) 오후 4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
	대학생 우수건축 작품전	도시경관을 주제로 한 유치원, 초·중등 학생의 그림공모 및 입상작 전시
시민학생 참여행사	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회
	건축체험교실	학생들이 건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동기 부여
	건축도시·사진공모전	아름다운 도시 경관 및 골목길을 주제로 한 공모전 및 입상작 전시
기타행사	건축민원상담	대시민 건축 무료 상담
	기타 행사	아름다운 문화도시공간상 전시, 경관취약지 개선사업 등

Architectural Design Group

(주)건축사사무소AD그룹
Since 2000

AD GROUP이 지향하는 목표는 人本입니다
AD GROUP의 DESIGN 철학도 人本입니다

(주)건축사사무소AD그룹
• 건축설계, 감리 • 도시계획설계

(주)에이앤디
• 인테리어설계 • 인테리어 시공
• 에코빛 단열필름 시공

(주)에이앤디 부동산 개발업(등록번호 광주090008)
• 등록규모(연면적 2000㎡)이상 부동산개발
• 약정에 따른 부동산 개발

(주)베트남하노이 건축사사무소AD그룹

대표건축사 양동현 심상봉 신정철 양동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88번길 29 / T 062)527.5000 / F 062)523.3700

창간 5주년을 축하합니다.

경상북도를 달군 “2014 대한민국사대회” 이모저모



지난 10월 24일 경상북도 구미코에서 개최된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서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사진 좌측), 전남건축사회 국원식 회장(중간), 전북건축사회 김남중 회장(사진 우측)이 입장식을 거행하고 있다.



대회장인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사진 좌측)이 대회기를 힘차게 휘두르며 건축사대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 김관용 경남도지사(중간)와 남유진 구미시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또한 대회장 및 이각표 조직위원장, 임송용 집행위원장, 시도회장 등이 비전선포식(사진 우측)을 통해 건축사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날 16개 시도에서 추천된 건축사 30여명에게 협회장상이 수여되었다. 이날 광주건축사회는 2인(김곤 건축사[선택 건축]와 정명철 건축사[주)에이엠지그룹 건축])이 표창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정명철 건축사가 광주건축사회를 대표하여 수상(사진 좌측)했다. 이번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 전국건축사 5천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광주건축사회원 모두 한마음이 된 “제6회 한마음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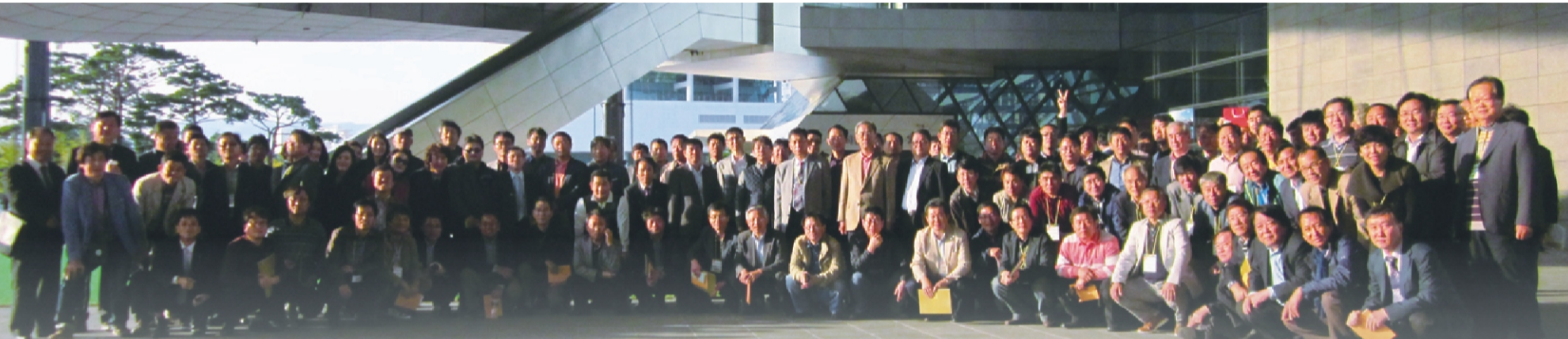
지난 10월 18일 광주대학교 진월관에서 열린 제6회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사진 좌측)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건축사회 조종기 회장(중간)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본 체육대회 시작을 알리는 시축식(사진 우측)도 열렸다.



회원 180여명과 가족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체육대회는 각 구별로 청팀과 백팀으로 나눠 경기가 열렸으며 지네발릴레이와 희망탑쌓기, 투호, 족구, 피구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그 어느 해보다 유익한 체육대회가 되었다는 평이다.



이번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운동경기 마지막으로 진행된 줄다리기(사진 좌측)였다. 각 팀원 모두 단합된 힘을 모아 줄다리기 경기에 참여 하였다. 이어 가족들이 함께하는 장기자랑과 초대가수의 공연으로 제6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 하였다. 안길전 회장은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다져진 회원들간의 화합이 앞으로 광주건축사회를 발전시키는 큰 에너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건축문화사랑 신문 창간 5주년을 축하하며 지역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의 건축문화와 나아가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건축전문지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건축문화사랑과 전라북도건축사 회원들은 함께 합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김남중 회장과 회원일동

건축문화 사랑 창간 5주년을 축하합니다.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조충기 외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이성우 외 회원일동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유흥재 외 회원일동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조동욱 외 회원일동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안길전 외 회원일동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송영규 외 회원일동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정태석 외 회원일동
-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회장 김순공 외 회원일동
-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김인철 외 회원일동
- 강원도건축사회 회장 김종오 외 회원일동
- 충청북도건축사회 회장 한재희 외 회원일동
- 충청남도건축사회 회장 최종욱 외 회원일동
-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김남중 외 회원일동
-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국원식 외 회원일동
-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 임송용 외 회원일동
-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장 박무귀 외 회원일동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고봉규 외 회원일동

학생기고

대학교 입학에 원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한발 더 다가간 진로 박람회

양태 선 학생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2014년 10월 중순 원광대학교에서 취업 박람회와 함께 진로 박람회를 개최했다. 그동안은 수시 1차와 2차를 대비하여 대학교 진로에 고민인 고등학생들이 원광대학교를 답사하여 특정과만 둘러보는 형식이었던, 이번 진로 박람회는 원광대학교 전체 과를 체험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신이 원하는 각 과를 체험해 도장 9개를 채워가는 이벤트로 열렸다. 모든 과가 공평하게 부스 1개씩 배정 받았는데, 건축과는 건축학과 건축공학이 서로 붙어 있어 2개의 부스를 얻었다. 진로 박람회의 현장 열기는 취업 박람회보다 더 뜨거웠다.

건축과 행사요원에게 이번에 새롭게 바뀐 진로 박람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Q: "작년에는 단순히 각 과를 둘러보기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형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확실히 작년에는 그저 고등학생들이 각 과를 둘러보기만 하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진로 박람회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궁금한 점과 어느 것에 적성이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 좋은 것 같습니다"

Q: "고등학생들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A: "처음에는 그저 둘러보기만 하고 지나 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번에는 행사를 참여하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물어보았다.

Q: "친구는 진로 박람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처음에는 진로 박람회라고 해서 단순히 진로 상담이나 받고 학교를 둘러보는 걸로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정반대고 제 고민을 편하게 직접 해당 과 오빠, 언니들에게 물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진로 박람회와 같이 전국의 대학교에서 새로운 방법을 통해 진로를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한발 한발 더 다가가는 구성으로 박람회가 개최되었으면 좋겠다.

건축사 만평

건축사협회 신지형
우리의 제한 건축의 바다는
진도 때때로 완바다의 동행처럼
살살하다.
건축 재래, 부재, 유래의식의 실종...
지금은 나아가야 "동행"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닐까? 2014

심상봉 건축사작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천일석재 CHONIL STONE

음수대 / 음수전 / 볼라드 / 의자석 / 간판석

천일석재 음수대 7대 특징점

1. 통돌을 사용하여 설치가 간편하다.
2. 내부가 설치되어 있어 연결만 하면 된다.
3. 수도꼭지 고정식 교체하는데 편리하다.
4.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5. 설치후 사용 중 다른장소로 이동이 가능하다.
6. 천재지변이나 임의파손이 아닌경우 반 영구적이다.
7. 국내석으로만 제작한다.

천일석재대표 강 현 녀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용왕길 77 (구,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40-13)
TEL : 063)862-0310, 0814 (야간) 841-5232 FAX : 063)862-0309
E-mail : chonilstone@hanmail.net / www.chonil0310.com

정보

광주 동구청소년 수련관, "Youth-아레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동구청소년수련관(관장 김경숙)은 여성가족부와 동구청의 후원으로 방과 후 나홀로 청소년 예방과 사고육비 절감,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Youth-아레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 여름 8월부터 9월까지 "동구마을지도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동구지역 마을(운림동 및 학운동 문화유적지)을 탐방 체험하여 동구역사와 관련된 스토리를 수집하고 스토리텔링화 작업을 통해 동구마을지도를 만들었다. 완성된 마을지도는 동구지역 내 공공기관에 배부될 예정이며 지도만들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Youth-아레떼" 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청소년들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중학생 1, 2학년 각 20명씩 모집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국어, 영어, 수학, 난타, 미술, 뮤지컬, 농구, 댄스 등 교과학습과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밝은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토요체험활동을 실시한다.

문의 : 동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062)416-7225

141103 건축행정 제보를 받습니다.

<社告_건축행정과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본 지에서는 건축행정 선진화를 위한 특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우수한 사례는 널리 장려하고, 불편·부당한 사례는 개선방향을 공론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독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보내용 : 칭찬·장려사례 또는 불편·부당한 사례
대상기간 : 2014년 12월 31일 이전
제출기간 : 2014년 12월 31일
제출방법 : 본 지의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등
활용원칙 : 제보자 절대 보호, 사실 확인 후 게재
활용계획 : 특집기획_건축행정 선진화

사랑에서 하나

색깔을 찾아 나서다.

<건축문화사랑>이 거창한 꿈을 안고 세상에 얼굴을 들이민 지 어느덧 5년. 사람으로 치자면, 그동안은 마치 품속의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 각별한 보호와 정성스런 양육이 필요한 시기였던 것이다.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부림쳤고, 냉혹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면역을 키워왔다. 갖은 것이 없어서 건축사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웅얼이에 불과한 표현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익혀왔으며,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걸음마를 연습해 왔다. 여기까지가 5주년을 맞이하는 <건축문화사랑>에 대한 필자의 시각이다.

하지만, 이제는 품속에서 벗어나 서서히 홀로서기를 준비해야할 시기가 되었다. 사람으로 치더라도 말문이 트여 한창 재잘거리고, 좌충우돌하며 존재감을 알릴 나이인 것이다. 즉, 탐구력이 증가하면서 질문도 많아지고, 어설피지만 자신의 생각을 제법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다. 그리고 실력 실수와 짓군은 언행을 저질러 분노와 혼란을 야기하더라도 일정부분은 관용과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이에 <건축문화사랑>은 5주년을 기점으로 조심스럽고도 과감하게 제 색깔을 찾아 나서고자 한다. 그렇다고 용기충천하거나 자신만만한 것은 아니다. 처음 대문 밖으로 나서는 어린아이처럼 두렵고 걱정스럽다. 자립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사설'이라는 형식은 차마 선택하지 못하고, 고정된 집필진에 의한 '칼럼' 형식을 취하게 됐다.

건축전문지로서의 정체성 정립,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찾아서

간판은 '사랑에서'라고 내걸었다. 세상 이야기를 부담 없이 나누는 사랑방의 의미와 그 모든 얘기들이 건축문화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되었음을 동시에 나타내고자 했다. 건축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 또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도 표명해 볼 예정이다. 그리고 건축사의 위상과 역할을 인식시키거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건축인과 건축사에게 사회적 책무와 도덕성을 일깨워주는 역할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분간 집필진은 초대 편집인 박홍근 건축사와 2, 3대 편집인인 필자로 고정하기로 했다. 본지가 초창기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건축문화사랑>은 다섯 돌을 맞는 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 외형과 힘은 미약하지만 건축전문지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고,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찾아가기 위함이다.

아무썽록 <건축문화사랑>의 도전에 독자와 재현들의 참여와 지도 및 관심이 뜨겁게 일기를 기대한다. ♡ 편집인 서재형(archiseo@nate.com)

광주광역시, “제18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선정”

— 비주거 부문 금상에 박흥근 건축사((주)포유 건축) 설계작 ‘오월어머니집’



▲ ① 비주거부문 금상 ‘오월어머니집’ ② 비주거부문 은상 ‘효덕동주민센터’ ③ 비주거부문 동상 ‘석봉도서관’ ④ 주거부문 동상 ‘bird house’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 부문 금상에 천변좌로418번길 18(양림동)에 위치한 오월어머니집이 선정됐다.

비주거 부문 금상에 선정된 오월어머니집은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흥근 건축사가 설계했다. 전통한옥과 근대건축이 공존하는 작품으로 장소성과 전통건축에 대한 이해가 우수하며, 양림동의 문화와 정서를 투영해 건축형태 및 공간구성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상은 효덕동 주민센터(남구 진월동, 설계자 :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안길전 건축사), 동상은 석봉도서관(북구 매곡동, 설계자 : (주)맥스유 종합건축사사무소 장정수 건축사)이 선정됐다.

주거 부문은 금상과 은상은 해당 작품이 없고, 동상에 bird house(북구 일곡동, 설계자 : 한샘 건축사사무소 최경양 건축사)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 건축상에 선정된 건축물에는 동판을 제작해 게시하고,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에게는 오는 11월 4일 광주광역시와 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서 개최하는 건축인의 밤 행사에서 광주광역시장상을 수여하게 된다.

선정된 작품은 오는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열리는 제1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에서 전시된다.

수상작품 목록

구분	작품명	설계자	시공자
비주거부문 금상	오월어머니집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흥근	(유)충원건설 대표 조성래
비주거부문 은상	효덕동 주민센터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안길전	(주)자앤지종합건설 대표 윤원식
비주거부문 동상	석봉 도서관	(주)맥스유종합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장정수	남화토건(주) 대표 최상준
주거부문 동상	BIRD HOUSE	한샘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최경양	한샘종합토건 대표 최옥선

광주광역시,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선정 발표

— 석봉도서관(공공부문), 수완K.S병원(일반부문), 봉선동 광명아파트(APT부문) 선정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나무심는 건축인’이 주관하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의 올해 수상작이 발표됐다. 공공부문에는 석봉도서관이 선정되었고 일반부문에는 수완K.S병원, APT부문에는 봉선동 광명아파트가 선정됐다.

석봉도서관은 광주공공 담을 허물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라는 평과 수완 K.S병원은 전면광장을 휴게공간으로 형성하여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라는 데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봉선동 광명 아파트는 코너 땅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라는 데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작품은 오는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열리는 제1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발표

— 사용승인부문 공공분야 대상에 부안청자전시관, 일반분야 대상에 전주 붉은 벽돌 박물관 선정



전라북도는 지난 10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사용승인 부문과 계획설계 부문, 건축사진 부문으로 나뉘며 공모된 전북건축문화상에 수많은 작품들이 접수되었고 최종심사결과 사용승인부문 공공분야 대상에 부안청자전시관(사진 좌측 설계자 :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와 일반분야 대상에 전주 붉은 벽돌 박물관(사진 우측 설계자 : CL건축사사무소 김종성 & 전주대학교 임용민 교수)이 선정됐다.

전부문의 수상작품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오는 11월 7일 오후 5시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이 개최된다. 작품 전시회는 오는 11월 8일까지 전라북도 청사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에서 열린다.

▶ 사용승인부문 (공공분야)

대상	부안청자전시관	이길환((주)길 건축사사무소)
금상	새만금 주변 공원 조성공사	반진호(참하늘건축사사무소)
최우수상	남원 보절면 파출소 리모델링	노현희(아키엔 건축사사무소)

▶ 사용승인부문 (일반분야-총괄)

대상	전주 붉은 벽돌 박물관	김종성(CI건축사사무소) 임용민(전주대학교)
금상	전주 중부 비전 센터	정창석(예림건축사사무소)

▶ 사용승인부문 (일반분야-주거)

최우수상	누마루 7자 집	홍만식((주)리슈건축사사무소)
------	----------	------------------

▶ 사용승인부문 (일반분야-비주거)

최우수상	농촌지역의 상생과 문화적 소통공간, 동김제 농협 로컬푸드	최진오(동김제농업협동조합)
------	---------------------------------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도시재생·건축공모전 입상작 발표

— 도시재생공모전 대상 전남대 김현 학생, 건축공모전 대상 세종대 이태연, 김동연 학생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지난 10월 28일과 30일 각각 도시재생아이디어공모전과 건축공모전 입상작을 발표했다.

광주 푸른길 공원과 도시재생이란 주제로 진행된 2014 광주도시재생아이디어공모전의 대상작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김현 학생의 ‘길로 잇다’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광주 우체국의 장소성 부활이라는 주제로 공모된 2014 광주건축공모전의 대상에는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이태연, 김동연 학생 팀의 ‘모오다:열다’ 작품이 선정됐다.

자세한 입상 내용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상작품에 대한 전시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열리는 제1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진행된다.

■ 2014 광주도시재생아이디어공모전 우수상 이상 수상자 명단

대상	김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길로 (로) 잇다
우수상	김지환 임예지	건국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설계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푸른길공원활성화를통한문화의흐름 Flowcuture 푸른연덕 MONTBLEU

■ 2014 광주건축공모전 우수상 이상 수상자 명단

대상	이태연 김동연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모오다:열다 Gathering;opening
우수상	한정현 박정훈	조선대학교건축학과 삼진건축사사무소	벽_기억을붙잡다 Wall_catchtheMemory
	용용식	에스튜디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우다방 spacefortime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이은주 세무사무소

광주건축사회 세무 관련 자문위원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대표

저희 사무실은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무관련 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제공.
조세에 대한 신고, 신청 등
불복대행 양도, 상속 등 재산세제의 상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동구청 및 북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현)북구청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현)광주지방 국세청 심의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94 / 4층
(서광주세무서 앞)
전 화 : 062-383-0002 팩스 : 062-383-1181
휴대폰 : 010-3256-9759
e-mail : eunjootax@hanmail.net

하나오앤씨

대표 문 지 훈

최적의 설계 환경에 맞는
복사기 / 프린터 / 컴퓨터 / 소모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
귀하의 사무실 유지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품질은 최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 신도리코 / 케논 / 제록스 / HP

판매 | 임대 | 복합기 | 프린터 | 컴퓨터 | 시공 | 네트워크 | 프로젝트 | 서버
프로그램 AutoCAD | CADPower | Revit | Adobe | 3D-Max | Sketchup | 각종 프로그램
전산소모품 토너 | 복사용지 | 유지관리 | A/S | 수리 | 설치 | 유지보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로 86번길 7-7
C.P 010-6694-2233
TEL 062-374-6525 FAX 062-374-6526
E-MAIL - hanaoc@hanmail.net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 광주시 복싱선수단 격려 방문해

—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선전 기원차 방문해 격려금 200만원 전달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안길전 회장은 지난 10월 18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염주체육관을 방문하여 광주시 복싱선수단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안길전 회장을 비롯한 정명철 부회장과 국민생활체육 광주시 복싱연합회 김권수 회장(주)보림 건축사사무소 등 선수 및 코치진 30여명이 함께 했다. 안길전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이번 전국체전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광주건축사회원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건축사회는 1995년부터 광주시복싱선수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격려 방문하고 있다.

한편 제95회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렸다.

전남건축사회,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전개

— 지난 10월 30일,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다문화 가정 노후주택에 대한 지붕개량 나서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국원식)가 최근 도내 농어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4년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에 위치한 다문화 가정의 노후주택에 대하여 지붕개량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년 최초로 도내 지역 3가구를 선정하여 두 번째로 전개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대상 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ews 광주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김미정 건축사 / A1130 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영로 226-0 3층
- * 변경(상호명, 소재지)**
 - 이윤행 건축사 / 티에스 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번길 502-735 랜덤피아오피스텔 209호
- * 결혼**
 - 김은숙 과장 / 광주건축사시험 본인 결혼 - 12월 14일 (일) 12시 40분 피엔제이 웨딩홀 2층 주얼리홀(상무지구 치평동)
- * 부고**
 - 김봉성 건축사 / 비에스 건축사사무소 부친상 - 10월 22일 (수)
 - 박강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한울 부친상 - 10월 25일 (토)

News 전북건축사회 동정

- * 변경(소재지)**
 - 양우현 건축사 / 백현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남로 28(5층)
 - 윤창식 건축사 / 윤 건축사사무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기지로 37 제5층 503호
 - * 결혼**
 - 박용규 건축사 / 소망 건축사사무소 장남 결혼 - 11월 1일 (토)
 - * 부고**
 - 유성환 건축사 / 예스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 10월 11일 (토)
- ※건축허가관련 양식 기재란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시다. 건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News 광주·전남·전북 11·12월 지역축제 안내

- ▶04. 04 (금) ~ 11. 11 (화)까지 제9회 빛고를 독서마라톤대회 - (<http://bookmarathon.gen.go.kr/>) 홈페이지 접속
- ▶10. 22 (수) ~ 12. 04 (목)까지 정남진국화페스티벌 - 전남 장흥군, 천관산 통합의학박람회장
- ▶12. 03 (수) ~ 12. 05 (금)까지 2014 국제그린카전시회 - 광주 서구,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 ▶12. 11 (목) ~ 12. 14 (일)까지 2014 전주MBC 베이비페어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화산체육관
- ▶12. 12 (금) ~ 01. 25 (일)까지 보성 차밭 빛 축제 - 전남 보성군, 봇재대원 및 다향각 전망대 일원
- ▶12. 31 (수) ~ 01. 01 (목)까지 여수 향일암 일출제 - 전남 여수시, 향일암 (임포마을)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9호)

- 1. 개정이유**
사회여건 및 주민수요 변화에 맞춘 도시계획시설의 탄력적 활용 및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시설 간에는 용도변경,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가. 기능이 유사한 도시·군계획시설 간의 변경시 경미한 변경으로 반영(안 제25조제3항)운동장, 체육시설 등 기능이 유사한 도시·군계획시설 간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 간의 용도전환 및 복합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임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8호)

- 1. 개정이유**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의무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므로, 개정내용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또한, 지진에 대비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은 '88년 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지진발생 가능성 대비 국민부담 증가 우려로 인해 '09년 이후 소규모로의 추가 확대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진 위험이 큰 지역에 위치한 주요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지진구역 I 지역의 중요도 특 건축물을 내진성능 확보 의무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시기를 대통령령 시행령 내용에 맞도록 조정(안 제58조 본문 개정)
1) 영 제32조가 개정되어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영 제32조'를 '영 제32조 제2항'으로 수정하고, 제출시기를 삭제
나. '지진구역 I'에 위치한 '중요도 특' 건축물을 내진성능 확보 대상으로 추가(안 제61조제1항 신설)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서 정하는 '지진구역 I'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1상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대상으로 포함.
-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로 2014년 12월 8일까지 제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273호)

- 1. 개정이유**
주택건설 환경 변화 및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제한을 폐지하고, 공동주택 하자가 복잡·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하는 한편,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행정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현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주택건설 환경 변화 및 다양한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주택의 규모제한을 폐지(안 제21조)
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을 위해 감리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부정행위를 한 감리자에 대한 입찰제한 등 행정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안 제26조)
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정해진 공공기관에 한정하였으나, 해당 기관의 기술 및 장비 등이 부족하여 하자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감정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62조의14제2항제5호)
-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11월 27일까지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및 공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16면외전면광고 : 700,000원
- 하 단 광 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 금 주: 광주건축사회
-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 521-0025~6 F. 062) 528-0026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담당임원 정명철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초대편집인 박용근
편집인 서재형
전담기자 광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범
편집위원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종호, 양우현, 박주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창간 5주년을 기념하며...

2009년 11월, 제1호 발행으로 시작 된 건축문화사랑이 어느덧 60호,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하는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되겠습니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박용근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이길환 (주)길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윤준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이은주 이은주 세무사무소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내 생애 아름다운 순간

그랬다. 아버지는 내게 항상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라, 이젠 그만 미술을 그만 둘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하셨다. 그때마다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말 듣고 죽을 때 후회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후회 없이 죽는 게 좋겠어요.”라고 답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림 얘기를 하지 않으신다. 가끔씩 “장례식장비 준비해 놔다, 걱정마라.”는 말씀 뿐이다.

2012년 2월 7일 전북대병원 6232호. 몽롱한 태양, 밤새도록 소복소복 눈이 내렸다. 남 말하듯 암 통보를 하시더니 여러 번 놓고 일어나셨다. 환자인가 보호자인가. 환자복이 아니었다면 아버지와 나를 분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둘은 점점 닮아갔다. 불현듯 오후3시 세수를 하고, ‘많이 좋아졌어요.’라는 통상적인 말이 오갔다. 첫 번째 입원은 스캔들이요, 두 번째 입원은 사망이란다. 아버지 옷 갈아입힌 후 산책을 하자며 복도로 갔다. 6층을 한 바퀴를 돌고 둘은 의자에 앉았다. 농담하듯……, “아버지 체장암이시고요, 일 년 정도 사시고요, 큰형님이 모신대요.” 아버지 “암면! 암면!” 하신다.

침대 위는 날기 위한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손이 인도코브라 대가리처럼 허우적인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 손끝에서 나를 쳐다본다. 거미줄에 걸린 벌레처럼 링거 줄 하나 둘 늘어 간다. “고구마를 막 씻어서 먹을 라고 했는디……, 화장실 가야겠다.”허공을 휘젓는 손을 잡았을 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문득, 삼 년을 업어 키웠으니 삼년상 해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이 떠오른다. 칭얼대는 어린 나를 끌어안고 지새웠을 밤. 이 밤, 아버지의 손이 떠난다.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을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판사람 줄라고 피 빼는 거여.” 하시며 옆구리에 연결된 호스를 자꾸 돌아보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이별인가. 이별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저 이별은? ‘……’ 아버지는 시계를 찾으신다. 휴대전화를 찾으신다. 나는 아버지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 한번 들어 올렸다.

침대위로, 바닥으로 피가 쏟아진다. 밤 11시다. 복수를 빼내기 위해 꽃아 놓은 옆구리의 호수를 뽑아버렸다. 황급히 당번 의사를 불러 봉했다. 11시30분, 아버지는 손등의 바늘을 뽑았다. 피, 침대, 바닥, 피, 간 호사가 왔고 밴드를 붙였다.

연습시켜 주세요. 사랑도 연습, 노래도 연습, 연습이면 안되는 게 없는 데, 연습이면 이별도 가능, 죽음도 가능, 아무렇지도 않게 잘 할 수 있는데, 연습하다 보면 참말로 쉬운 게 인생 인데…….

2012년2월18일 새벽 8시 30분, 운명하셨다. 형들과 동생은 차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의 권고다. 4년 전 어머니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충격이 컸다. 단 한마디 이별의 말도 못하였다. 12일간 병간호는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지는 못했지만, 온종일 아버지의 속옷, 오줌통, 밀 닦기까지 나와 아버지 사이엔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 생의 마지막 끝자락을 함께 거닐 수 있었던 것은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늦가을 하늘에 기대어

늦가을 하늘을 바라다보니
인생의 사계를 생각해본다.

아이처럼 늘 푸르렀던 봄
젊음의 열정을 태웠던 여름
성숙해가는 가을

그리고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르는 겨울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지금의 나는
저 가을 하늘처럼
잔잔히 흘러왔는지

그리고 붉게 물든
저 가을 하늘처럼
화려하게 흘러왔는지

돌아본다
바라본다

그리고 기대어 본다

책 소개

「남이섬 CEO 강우현의 상상망치」

서 유 미

전남대학교 시설과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게을러짐을 느낀다. 하지만 ‘상상망치’를 읽고 난 뒤에는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강우현대표의 강의를 듣고 싶어졌고, 남이섬을 가족들과 즐기고 싶어졌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엄마가 되고 싶어졌다.

평범한 가정(형편이 어려웠다는게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다)에서 태어났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하여 이제는 제법 안정적인 가정과 직업을 갖게 되었으나, 미완의 세계를 향해 다시 여행을 떠난다는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졌다.

3천개의 소춧병을 녹여 만든 6성 호

텔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고 예술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꾸민 객실에서 하룻밤 머물며 아이들과 이슬정원을 산책하고 싶어졌다.

“당신은 CEO인가, 예술가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내 아들의 아버지 이다”고 대답하는 그를 보고 나도 그렇게 말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졌다.

강우현은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한 후 캐릭터디자인, CI(기업이미지통합디자인), 그림동화책 만들기 등의 다양한 디자인 일을 하다 49세에 남이섬 대표가 되어 다 쓰러져가던 유원지를 한 해에 2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도록 만든

디자이너CEO이다.

고등학교(보인상업고등학교) 졸업 성적은 전교생 162명 중 157등 이었고, 산만한 것도 특기라는 그의 상상놀이는, 특별할 것 없는 나 같은 사람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품게 해준다.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며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나에게는 ‘남보다 먼저, 남 못하는 일을 하라’고 쓴소리를 한다. ‘정승처럼 벌어야 정승처럼 쓴다’는 투명경영이나, 정년을 80세 까지 늘린 역발상 구조조정은 기업가들에게도 꼭 알려 주고 싶다.

올가을 여행 계획을 못 세웠다면 ‘나 미나라공화국’은 어떨까요?

건축사 Gallery



무등산의 초가을(충효동에서) 규격 : 53cm x 45.5cm / 재료 : 캔버스위 유화

광주를 품은 어머니 같은 산. 무등산은 언제 어디에서 바라보아도 정겹다. 충효동 다량야논에 나락이 어물고 무등산에도 가을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임 정 구 건축사(任貞杓 / Im Jung-goo) 씨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정

건축사 Photo



“우리의 미래” “자연이란 공간속에서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뛰노는 아이들보니 미소짓게 된다. 내가 만드는 건축이란 공간 속에서 서로 모두함께 미소짓는 내일을 기대해 본다.

김 대 운 건축사 린 건축사사무소(익산)

타지에서 날아온 창간 5주년 축하 편지

희생하며 봉사하고 계시는 제작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 담아



정운기 건축사
ANA 건축사사무소(충북 청주)

처음 <건축문화사랑>을 접하게 된 때가 2012년1월, 이미 지령이 25호를 넘어선 때였다. 호기심에 쥐어진 신문을 단숨에 훑어보고 난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제법 괜찮은데. 어쭙, 벌써 2년이 넘었네. 과연 얼마나 같까?'였다. 그렇게 호감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는데, 어느덧 창간 5주년! 그 세월을 거치는 동안 우려는 사라지고, 부러움과 기대감만 가득 남았다.

사실, 충청북도에서도 지역의 건축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지의 발행을 꿈꿔오고 있다. 몇 년 전에는 간단한 소식지 발행이 청주지역에서 시도되기도 했었고, 충북건축사회장 선거에서는 건축사신문의 발행이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5살짜리 <건축문화사랑>을 대하는 마음은 한마디로 '부러움'이다. 꼭 신문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의지를 갖게 되면, '그래 해보자'라고 호응하는 결기가 부러운 것이다.

가장 즐겨보는 기사로는 단연 회원작품이다. 멀리 청주에서 호남권 건축의 흐름과 유력 건축사들을 지면으로나마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즐거움이다. 시론도 꼼꼼히 읽어 볼만하다. 물론 내용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과 설명은 돋보기를 쓰고 읽는 수고에 대한 대가로는 차고도 넘친다.

반면에 아쉬움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대중성 강화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 진정한 건축문화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

로 이해하고 어우러져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원로 건축사들의 경험과 흔적, 신진 건축사들의 기개와 희망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배들의 치열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후배들의 희망찬 미래를 고민하는 것 또한 매체의 임무라고 보기 때문이다.

도약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 즉 시대정신을 읽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려는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다섯 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건축문화사랑>을 풀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의 모든 회원들께 뜨거운 찬사를 보낸다. 더불어 기꺼이 희생하며 봉사하고 계시는 제작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계속 될 부럽고 아름다운 행보를 기대하며...

창간 5주년을 축하합니다.

<p>해송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강기석</p> <p>광주 광산구 목련로 381번길 26 Tel.062-952-3691 Fax.062-952-3693</p>	<p>(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강필서</p> <p>광주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27, 609호 Tel.062-611-5702 Fax.062-611-5704</p>	<p>조형 건축사사무소(주) 건축사 강현구</p> <p>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96 Tel.062-653-8122 Fax.062-383-5677</p>	<p>(주)간토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곽영경</p> <p>광주 북구 일곡택지로53번길 38-6 Tel.062-515-1111 Fax.062-515-2210</p>	<p>(주)플러스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조두상</p> <p>광주 서구 마북로 122 Tel.062-384-8261 Fax.062-384-8262</p>
<p>선택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곤</p> <p>광주 북구 유림로 140 Tel.062-512-6900 Fax.062-513-3576</p>	<p>(주)원일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동선</p> <p>광주 북구 무등로 255 Tel.062-223-6399 Fax.062-224-6399</p>	<p>A&C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유기준</p> <p>광주 서구 화정로 82-1 (3층) Tel.062-372-0938 Fax.062-372-0937</p>	<p>(주)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문강욱</p> <p>광주 북구 문화소통로 52 Tel.062-526-8660 Fax.062-526-8663</p>	<p>(주)현대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조연성</p> <p>광주 북구 무등로 182-1 Tel.062-528-0101 Fax.062-528-3163</p>
<p>건축사사무소 한울 건축사 박강민</p> <p>광주 북구 임방울대로1042번길 49(신용동) 자이프라자 301호 Tel.062-654-1814 Fax.062-654-1815</p>	<p>(주)홍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재홍</p> <p>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89 408호 (치평동) Tel.062-375-6282 Fax.062-375-6284</p>	<p>서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서문용진</p> <p>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4 Tel.063-278-8022 Fax.063-286-8095</p>	<p>HS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선기택</p> <p>광주 서구 상무대로 895 (쌍촌동) Tel.062-376-9627 Fax.062-376-9626</p>	<p>한샘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최경양</p> <p>광주 서구 상무연하로 96(4층) Tel.062-526-4414 Fax.062-383-5677</p>
<p>(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건축사 심상봉</p> <p>광주 서구 풍암순환로 188번길 29 Tel.062-527-5000 Fax.062-523-3700</p>	<p>(주)우도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안성섭</p> <p>광주 서구 화개2로 9번길 29-13 2층 (금호동) Tel.062-956-3380 Fax.062-655-3383</p>	<p>(주)건축사사무소 누리 건축사 안천수</p> <p>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21, 401호 Tel.062-961-2330 Fax.062-961-2335</p>	<p>레종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최병률</p> <p>광주 동구 동명로 19-7(2층) Tel.062-224-1100 Fax.062-224-1102</p>	<p>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 건축사 한명석</p> <p>광주 서구 경열로 20 (농성동) Tel.062-352-0415 Fax.062-352-0416</p>
<p>건축사사무소 선 건축사 서재형</p> <p>광주 북구 무등로 255 (3층) Tel.062-432-0824 Fax.062-443-0824</p>	<p>(주)원기술개발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미영</p> <p>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추성로 571 2층 Tel.070-7685-2249 Fax.062-224-2246</p>	<p>건축사사무소 유림 건축사 박신남</p> <p>광주 서구 월산로 228 Tel.062-512-2540 Fax.062-382-1506</p>	<p>디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정명환</p> <p>광주 동구 서구 상무누리로 30 내 Tel.062-611-2800 Fax.062-611-2900</p>	<p>유민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종호</p> <p>전남 나주시 노안로 82 Tel.061-336-0206 Fax.070-7614-3640</p>

2014 Architect's Dream Solution

정보카드, 건축설계 환경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합니다.
정보카드를 통해 설계업무 과정에서 경험했던 비효율적인 작업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창조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미래의 설계업무 환경을 미리 경험해 보세요.

미래의 설계환경에 건축사님을 초대합니다.

10월	11월	12월
진주 10/14 (화)	부산 11/4 (화)	춘천 12/2 (화)
구미 10/16 (목)	대전 11/6 (목)	서울(강남) 12/4 (목)
서울(강북) 10/21 (화)	울산 11/11 (화)	순천 12/9 (화)
수원 10/22 (수)	청주 11/13 (목)	아산 12/11 (목)
일산 10/28 (화)	광주 11/18 (화)	인천 12/16 (화)
	전주 11/20 (목)	제주 12/18 (목)
	김해 11/25 (화)	
	대구 11/27 (목)	



유일한

광주·전남의 점토벽돌 제조회사!

새롭게 출범한 동아세라믹(주)는 지난 1995년 봉황세라믹스(주)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점토벽돌 생산의 기술력과 여러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점토벽돌 제조회사로서 큰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차별화된 제품 생산을 통해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일류 점토벽돌 제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점토바닥벽돌



점토미장벽돌

* 점토벽돌 시공사례



동아세라믹|주
DONG-A CERAMIC CO.,LTD.

본 사: 전남 나주시 봉황면 봉황농공단지길 134-7(구,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1-35)
Tel. 061-331-9000-2 Fax. 061-331-9003
서울지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2-1 크란츠테크노 801호
Tel. 031-737-7890 Fax. 031-777-8325